광주·전남 농공상 中企 112곳

농어업인-기업 제휴 제품 생산…전국 37% '최다'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동반성장을 꾀하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사업에서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곳 중 37.3%인 112곳이 선정된 것이다.

27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올해 선정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사 가운데 광주·전남 기업은 112개사로 전국 최다를 차지했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올 상반기 선정된 194곳 중 73곳에 이어, 하반기 106곳 중 39곳이 광주·전남 기업이다.

이 같은 성과는 광주전남중기청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100개 발굴·육성을 목표로 새로운 제품 개발과 시장 창출이 가능한 전남 바이오소재 3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발굴·기술지도를 통해 얻은 결과다.

이 중 '양파즙·마늘즙 전문 옥반식품영농조합'은 우수 기업으로 뽑혔다.

옥반식품영농조합은 건강음료개발업체 옥반식품과 청일유통, 삼정영농조합법인이 전략적으로 제휴한 기업이다. 옥반식품은 상품개발과 제품생산, 판매 관리를, 청일유통과 삼정영농조합법인은 양파의 원료 확보와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이 회사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안닌과 퀘르세틴이 풍부한 무안군의 빨간 양파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건강음료를 개발했다. 특히 무안 특산물인 양파를 연간 1800t 사들이는 등 양파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R&D, 컨설팅, 마케팅,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이 2차, 3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포스코 '파트너십'으로 불황 타개

협력사와 수익성 향상 토론
자재비·물류비 절감 실천
산행 함께하며 우의 다져

포스코 광양제철소 임직원 등이 최근 광양 백운산에 올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다짐'을 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백승관)가 경영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수익성 극대화 다짐 산행과 고객사 방문을 통해 불황타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현금원가(cash cost)절감, 생산성 향상, 판매증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일반적인 원가절감 활동보다 넓은 범위에서 수익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수익성 향상 목표를 1조원으로 정한 뒤 원료절감형 조업기술로 원료비, 에너지비 등 근원적 원가절감 활동을 전개하며 패밀리사와 연계한 자재 개선활동, 심야 수전비율 증대, 고정비 절감, 물류비 절감, 투자비 절감 등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최근 수익성 향상 다짐 산행에 이어 외주 파트너사와 수익성 향상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불황 장기화에 대비한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서 포스코와 외주 파트너사 합동대응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광양제철은 고객사, 외주 파트너사, 자재공급사 등 패밀리사와 공동 노력을 통해 패밀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하이밀부, 열연 판매그룹 직원들과 함께 지난달 하이밀 제품 주 고객사인 한진철관과 동아스틸을 광양제철 소장이 방문해 광양제철소의 혁신활동을 전파하고 고객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고객사와 밀착 경영에도 적극적이다.

동아스틸은 광양시 태인도에 위치한 원형 및 각형 파이프를 제조하는 강관업체이며, 한진철관은 천안에 공장을 두고 원형 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로 2곳 모두 광양제철소 하이밀로부터 열연제품을 구매하는 우량 고객사이다.

백 소장은 지난달말 현대기아차 공장도 직접 방문해 공장운영에 대한 어려운 점을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으며, 30여 명의 하이밀부 혁신 전도사들은 동아스틸의 주요 설비에 광양제철소의 성공혁신 기법인 3S(정리·정돈·청소)와 설비 VM(Visual Management)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고 관련 노하우를 전파했다.

포스코는 2013년 더블-더블(Double-Double) 운동을 전개하면서 수익성 더블업(Double Up), 경비절감 더블 다운(Double Down) 목표를 정하고, 엔지니어 기술역량 가속화 및 어학 스터디 그룹 운영 활성화, 현장직원 운전-정비역량 학습, 베스트 플랜트(Best Plant) 가속화를 통해 일당오 경비절감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고객사 사용기술 지원 및 프리 마케팅(Pre-Marketing) 활동 강화, 전직원 과제수행 확대로 비품, 출장, 임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비 50%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실내온도 18도 유지·내복입기·메일보고, 냉연·도금공장 방충망 설치, 구두보고 생활화 등 생활속 수익성 향상 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에버랜드 상품 디자인 내 손으로"

내달 1일부터 공모전…내일 조선대 설명회

삼성에버랜드(사장 김봉영)가 12월 1일부터 총상금 4500만원과 최신 갤럭시노트10.1을 걸고 전 국민 대상 '에버랜드 상품디자인 공모전'을 연다.

삼성에버랜드는 본격 접수에 앞서 토크 콘서트 형식의 사전 붐 조성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 공모전을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부터 시작된 설명회는 오는 29일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상봉, 왕춘호, 최범석 등 국내 유명 디자이너와 아트 디렉터 한젬마, 모델 송경아 등이 강연자로 나서 특별 강연을 펼치게 되며 참석자들에게는 각종 다과와 기념품도 증정된다.

본격 접수는 12월1일부터 두 달간 일반부와 어린이부로 나눠 '제1회 놀라운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공모주제는 일반부 ▲에버랜드 인기동물 ▲내년 봄 오픈예정인 신규 사파리 '로스트 밸리' ▲에버랜드 축제 ▲에버랜드 관련 자유주제 등 4개 분야다.

어린이부는 일반부 주제를 참고해 에버랜드에서 평소 갖고 싶었거나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은 상품 디자인을 제시하면 된다.

1차 예선은 작품이미지와 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www.everdesign.co.kr)나 에버랜드 페이스북('witheverland')에서 접수하고 2차 본선은 디자인원본과 작품기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어린이부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디자인 전문가와 교수, 네티즌, 에버랜드 방문 고객이 심사해 대상 한 팀 1000만원, 금상 3팀 각 500만원, 은상 5팀 각 200만원을 시상하고 어린이 10명에게 에버랜드 100만원 상품권을 준다.

페이스북 응모자 가운데 20명에게는 최신 갤럭시노트10.1을 부상으로 증정한다.

김봉영 삼성에버랜드 사장은 "누적 입장객이 2억명에 이를 정도로 에버랜드가 국민적인 테마파크로 자리 매김한 만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품 공모전을 기획했다"며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와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해 새로운 방식의 소통으로 고객 참여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우리로광통신, 코스닥 상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이자 지역 기업인 우리로광통신(주)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원식 코스닥협회 부회장, 최홍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김국웅 우리로광통신(주) 대표이사, 조웅기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연합뉴스

카드사 수익성 악화

불황 속에서 신용카드사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악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9월 중 7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이 1조7218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9월 순이익 1조423억원과 비교하면 65.2% 늘어났다. 하지만 일시적 요인인 유가증권 매매이익 8081억원을 빼면 12.3% 감소해 사실상 수익성이 나빠졌다.

올해 3분기 중 순이익도 3077억원으로 1년 전 4128억원보다 25.5% 감소했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카드사의 총채권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2.02%로 3개월 전보다 0.06%포인트, 카드채권 연체율은 1.67%로 0.04%포인트 올랐다. /연합뉴스

光銀, 中企에 1000억원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7일 대내외 경기불안에 따라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총 1000억원의 '온렌딩대출'을 편성, 한도 소진시까지 적극 지원에 나선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특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온렌딩대출은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기업에 지원하는 상품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용위험을 분담한다.

특히 이번 특별대책에 따른 대출금리는 최근 금리인하를 감안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제조업의 투자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했다. 또한 수출입실적 등 거래실적에 따라 0.3% 범위내에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 감안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최저 3.6%부터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시설자금의 경우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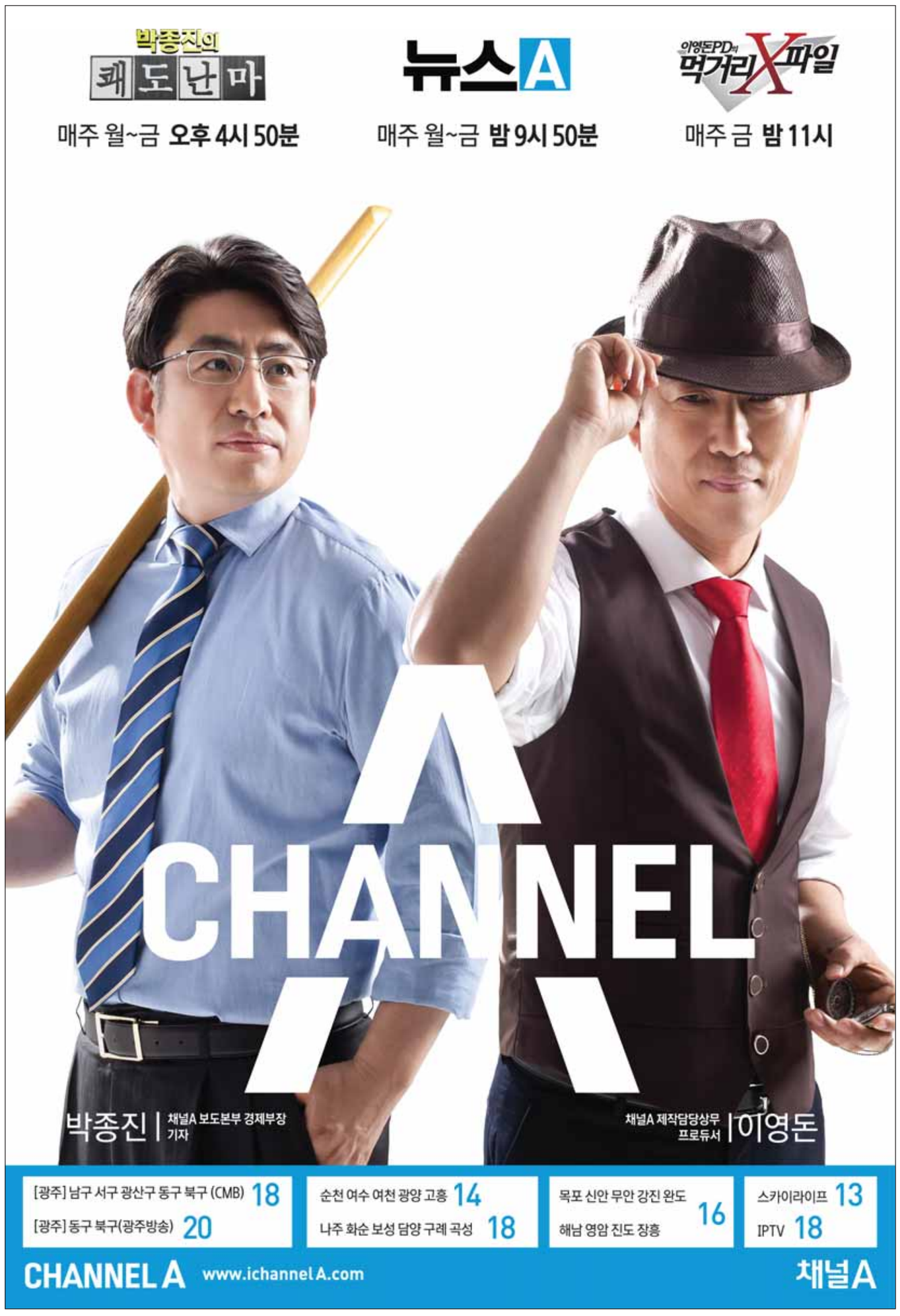
이정학 광주은행 기업영업전략부 부장은 "광주 전남의 열악한 제조업 기반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제조업 온렌딩 특별지원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가계대출 금리 또 역대최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지난 10월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내놓은 '2012년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84%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6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지난 8월에 이어 석 달 째 최저치 경신 기록이다.

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22%포인트 떨어진 5.08%다. 이에 따라 은행의 전체 대출금리는 0.15%포인트 낮아진 연 4.98%로 처음으로 4%대로 내려앉았다. 이 역시 역대 최저치다. /연합뉴스